

## 위성기술 문제등 논의, 아태위성통신회의 개최

아태지역 28개국 5백여명의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아태 위성통신회의(APSCC)가 열려 저궤도위성통신등 새로운 위성통신 기술동향을 선보였다.

세미나와 전시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총66편의 논문이 발표됐고 미 휴즈사와 프랑스 아리안스페이스사 등 전세계 17개 위성업체가 전시부스를 마련해 활발한 비즈니스를 벌였다.

전세계 위성시장에서 아태지역은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유럽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었지만 최근들어 이 지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에 힘입어 위성시장도 크게 커나가고 있다. 영국의 위성전문 지문업체인 유러컨설트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 전세계 시장중 이 지역의 비중은 30%도 안됐지만 98년에는 45%로 커질 전망이다.

이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이번 행사에는 ▷아태지역 위성서비스 계획과 시장조류 ▷이 지역을 겨냥한 첨단 디지털 위성통신기술 ▷최근 한국이 가입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등의 위성정책동향 등이 집중거론됐다.

ITU의 존 루이 위성규제담당관은 '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갈수록 아태지역 위성궤도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전파유통 등의 문제는 관계국간의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 인공위성개발 러 우주기구와 합작

삼성전자가 99년 인공위성을 제작, 발사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와 공동으로 3년내에 100kg급 자원탐사위성을 개발, 발사한다는 인공위성개발사업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삼성항공과 공동으로 위성기획팀을 구성하고 최근 러시아를 방문, 러시아 우주기구(RSA)와 기술개발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러시아의 인공위성 제작 및 발사업체인 브니엠, 은포마쉬, SRC 등3개사를 상대로 기술이전방안등에 관해 협의중이다.

동사는 이 협의에서 위성개발사업을 자신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삼성기술진의 위성설계작업 참여는 물론 관련자료 제공등 위성관련기술의 완전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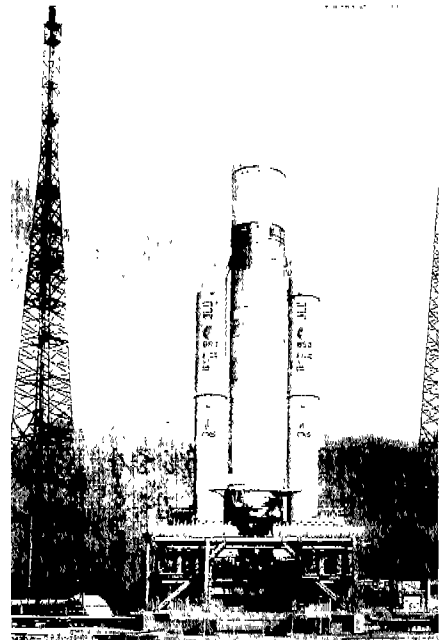
을 요구하고 있다.

동사가 계획중인 위성은 지상의 직경 2m크기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고해상도카메라를 장착, 지상 500-700km 궤도에 쏘아올려져 자원 및 지질탐사, 환경오염변화 예측, 농작물 작황 분석 등 원격탐사용으로 활용된다.

## 아리안 5호 발사 내년 4월, 실패후 두번째

유럽 아리안 스페이스사의 아리안(Ariane) 5호의 두번째 시험 발사시기가 내년 4월 중반으로 결정됐다. 또 세번째 발사는 9월경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만일 이 발사가 순조롭게 진행



아리안 5호는 지난 9월 첫발사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

된다면 상업 발사는 98년 초반으로 결정될 것이며 이는 계획보다 1년 정도 늦춰진 것이다.

그러나 찰스 비콧 아리안스페이스 회장은 '1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는 아리안5호의 운영상 문제점을 더욱 개선할 것'이라고 말하며 '첫발사 실패로 우리는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보완을 할 수 있었다'며 아리안 5호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 中, 유인 우주비행선 발사

중국 당국은 오는 2000년까지 유인우주비행선을 발사, 달에 착륙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 항천국 王禕恒부국장은 '국방과학공업위원회 주관하에 위성과 로켓제작 및 발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오는

'98년 무인우주선을 쏘아올리고 2000년까지는 유인우주선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유인우주선의 달착륙에 성공할 경우 미국 구 소련에 이어 세계 세 번째의 유인우주선발사 국가가 된다.

王부국장은 현재 20톤의 운반능력을 지닌 로켓을 개발중에 있고 달에 착륙후후 지구로 귀환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 러, 화성탐사선 발사 실패

열전기발전기용 플루토늄이 탑재된 러시아의 화성탐사선 '마르스96'이 지난 11월 18일 지구궤도 이탈에 실패해 대기권으로 떨어진 후 호주와 뉴질랜드 상공을 비행하다 태평양의 이스터섬과 칠레 사이 해상에 추락했다고 관

리들은 밝혔다.

'마르스96'은 지난 16일 밤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에서 프로톤 K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지구로 추락할 당시 대부분의 선체는 대기권 진입시 불에 타 소멸되나 4대의 열전기 발전기의 연료로 탑재된 플루토늄은 그대로 지구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고 있다.

한 핵과학자는 '마르스96'에 탑재된 플루토늄은 군사용 플루토늄보다 방사능이 수백배 많은 물질로 누출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나 임무실패에 대비해 특수용기에 보관되어 지상에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마르스96'의 실패로 금세기 내에 화성을 탐험할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러시아측은 밝혔다.

### 기다립니다

원간 항공우주는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정보전달과 우리의 이익을  
제시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항공우주에 대한 의견, 협회 및  
단체 등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공헌이 될만한 의견이 있으시면  
편지시예까지(전화: 761-1104 이창훈)  
보내주시시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정기구독안내

본 항공우주지는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기본  
대중적 이해의 확산을 위하여  
원하는 분에게 보급하고자  
합니다. 정기구독으로 1년이상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항공우주협회 기획과로  
신청해 주십시오.  
1년간 구독료는 12,000원입니다.  
담당: 남 주현  
■전화: 761-1101  
■FAX: 761-1175